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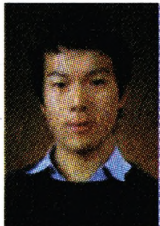
제43대 총학생회 '뚝뚝뚝' 팀 당선

회장 현용탁 부회장 박병준... 58.7% 지지

총학생회 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현용탁(원예 4)



박병준(경영 4)

자들 모두 고생 많았다"면서 "학생들이 지지해준 만큼 겸손한 자세로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총학생회 선거 결과에 따른 각 단과대별 투표율과 '뚝뚝뚝' 지지율이다.

▲인문대 △투표율=77.09% △지지율=60.22% ▲경상대 △투표율=80.70% △지지율=53.51% ▲법정대 △투표율=79.54% △지지율=59.49% ▲사범대 △투표율=85.44% △지지율=62.88% ▲생명대 △투표율=91.84% △지지율=70.61% ▲해양대 △투표율=72.22% △지지율=54.24% ▲공과대 △투표율=76.26% △지지율=65.61% ▲자연대 △투표율=85.38% △지지율=62.48% ▲의과대 △투표율=76.96% △지지율=42.03% ▲수의대 △투표율=92.07% △지지율=11.25% ▲야간강좌부 △투표율=49.75% △지지율=66.39% ▲예술학부 △투표율=76.44% △지지율=46.46%

'뚝뚝뚝' 정·현용탁(원예생명과학 4) 부·박병준(경영 4) 후보가 2011학년도 제43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회장과 부회장으로 각각 당선됐다.

지난 16일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8825명 중 6936명이 참여해 78.59%의 투표율을 보였다. 지난해 75.10%보다는 다소 높은 투표율이었다.

총학생회 선거 '마감결과' '뚝뚝뚝'은 58.70%의 지지율인 총 4072표를 획득, 'T.O.P'의 총 2771표(39.95% 지지율)에 1301표를 앞서 당선됐다. 이날 무효표는 93표(1.34%)로 집계됐다.

현용탁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그동안 선거를 함께 치른 후보



박현 기자

지난 17일 자정 백두관 2층 시청각실에서 총학생회·총여학생회 선거 개표가 이뤄지고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대학 선정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오승은 교수)가 업무 개시 3개월만에 여성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대생 취업캠프, 여대생 맞춤형 취업특강, 여대생 실천 모의면접 실시, 1:1 개인별 커리어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 여대생 리더십훈련, 여

대생 CAP+, 동료상담자 프로그램, 진로취업상담 두드림 프로그램, 합격 skill 컨설팅, 면접 메이크업 레시피,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동계 방학기간 동안에는 여대생 리더십훈련 교과목, 리더십 취업캠프, 2011년 우수신입생 여대생 취업캠프, 2011년 신입생 적성탐색 컨설팅 등이 운영된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대생 맞춤형 진로개발과 멘토링 및 직무역량 향상 등 청년여성의 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전략산업의 새로운 직종 발굴로 여성인력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보완하는 중추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여대생 취업캠프가 1박 2일간 한화리조트에서 열렸다. 캠프에는 여학생 56명이 참가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일반대학원 모집

23일부터 인터넷 접수

2011학년도 일반대학원 일반전형 모집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모집인원은 석사 216명, 박사 142명이다.

필기교사와 면접교사는 다음달 17일 이뤄지며, 합격자는 다음달 12일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입시설명회 22일부터 학교별 개최

학교돌며 신입생 유치도

수능을 마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입시설명회가 본격 시작된다.

2011학년도 정시모집 입시설명회가 오는 22일 남주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열린다.

이번 입시설명회에서는 정시모집 주요사항과 전년도 입시분석 결과 등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시 정보를 제공한다. 또 학생들에게 우리대학을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 상영과 다양한 장학제도,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입학관리과 관계자는 "우리대학은 낮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장학금 지급률이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폭넓은 장학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시설명회는 시내 일반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입시설명회와 시외 일반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입시설명회로 이뤄진다. 고등학교생들이 우리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초청입시설명회는



지난 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도외지역 입시설명회.

23일 남주고, 24일 제주고, 25일 구포고와 서귀포고, 8일 한림고를 신성고, 26일 사대부고, 30일 대기고, 다음달 1일 오현고, 2일 제주고, 3일 중앙고, 6일 세화고 순으로 실시한다.

방문입시설명회는 입학관리과에서 시외 고교를 직접 방문해 입시 정보와 우리대학을 알리는 시간을 가진다. 오는 22일 남주고를 시작으로 29일 대정고, 다음달 7일 서

귀포고와 서귀포고, 8일 한림고를 방문해 진행한다. 학부모집명회는 다음달 14일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을 대학에 초청해 이뤄진다.

한편 지난 8일에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지역 진학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도외지역 입시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부산지역 교사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

제주암센터 건립 무산

(주)유니드파트너스 양해각서 해지

3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설립키로 한 최첨단 제주암센터 건립 사업이 무산됐다.

제주대는 지난 4월26일 (주)유니드파트너스와 '제주대 부지에 암치료를 가속기 이용한 제주암센터를 설립하는데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제주대는 제주암센터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한편, 병의원 전문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주)유니드파트너스는 장비구입 2500억원, 건

축비 500억원, 운영비 500억원 등 총 3500억원을 투입해 최첨단 가속

기 설비와 암진단 장치 등을 도입키로 약속했었다.

양해각서에서는 (주)유니드파트너스는 체결 후 30일내에 '제주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했었다.

그러나 (주)유니드파트너스는 제주대에 3차례에 걸쳐 제출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최

후통첩일인 지난 31일까지 약속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양해각서 상

의 사업추진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주)유니드파트너스에 이달

2일 양해각서 해지를 통보했다.

교수회 첫 총회

24일 국제교류회관

지난 1일 출범한 제4대 교수회(회장 양길현)가 힘찬 첫 행보를 시작한다.

오는 24일 오후 3시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교수회 감사 선출' 및 '제주대와 교수회의 발전을 위한 교수회 총회 겸 토론회'가 그 첫 걸음이다.

교수회 총회는 감사 선출과 교수회 발전을 위한 제언이 열린다.

이어 '학장 임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송성희 독립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홍경선 초등교육과 교수의 지정토론이 있다. 또 변종민 교수가 '교수회 발전 방안: 교수회칙 등 제도개선 중심으로'를 주제로 현안 토론회를 갖는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박사)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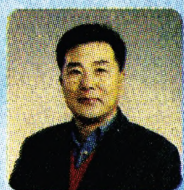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 Brain Korea 21

- ▶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고등 인력양성사업

■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 ▶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두뇌한국21(Brain Korea 21)사업 지역우수대학원 선정 학과! 국내 유일 관광부문 BK21 연구인력 양성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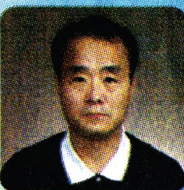
김용애
2009년 2월
박사학위 취득
(대국해저관광 회장)



김태진
2010년 2월
박사학위 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관)



고계성
2006년 8월
박사학위 취득
(경남대 관광학부 교수)



박인호
(박사과정 재학)
중국 연변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김명남
(박사과정 재학)
전 김녕미로공원
대표



장일
(박사과정 재학)
숙대 로고르동블루
Hospitality MBA

■ 대학원생 혜택

-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석사 월 50만원 이상, 박사 월 90만원 이상 지급
- ▶ 글로벌 인턴십, 해외 장. 단기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전액 지원
- ▶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시 차등성과급 지원

■ 주요활동

- ▶ 국제학술대회 참석
- ▶ 해외학자 초청강연
- ▶ 장단기 해외연수
- ▶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



■ 관광경영학과 (석·박사) 신입생 모집

- ◎ 원서접수: 2010. 11. 23 (화) - 11. 26 (금)
- 접수: <http://www.uwayapply.com> (1588-8988)
- 대학원 문의: <http://gs.jeju.ac.kr/> (754-2045)



BK21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광전문 연구인력 양성사업단

www.bktourism.org (754-2066)

총여 '여보세요', 총대 '육하원칙' 당선

동아리연합회 'YOU&I' 팀... 각 단과대 학생회장도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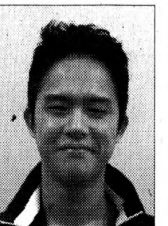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인문대학 법정대학



양혜경(가정 3)



김민석(정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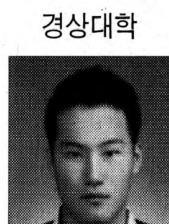
홍영기(경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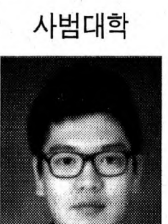
김수범(일문 2)



고영호(정치 3)



홍창범(경제 4)



홍석훈(국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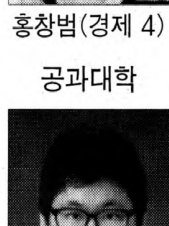
오연우(원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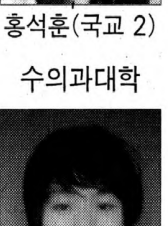
김봉진(해양생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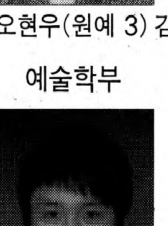
김형우(체육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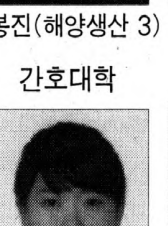
김민현(건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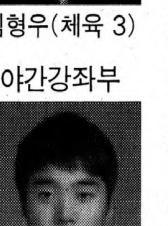
정석훈(수의 1)



김성국(조소 2)



임현경(간호 2)



백선호(관광 2)

제주대의 한 해를 이끌어온 2011학년도 중앙자치기구와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6일 치러진 중앙자치기구 선거와 단과대학 선거에서는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경상대학, 생명대학이 2팀씩 후보로 나와 경선을 치렀으며, 나머지 단과대학은 단선으로 진행됐다. 의과대학은 신입생을 뽑지 않아 선거를 하지 않고 대신 새롭게 간호대학이 신설돼 선거가 치러졌다.

총여학생회 선거결과 총 유권자 4008명 가운데 3280명(81.83%) 투표로 '여보세요' 정-양혜경(가정 3) 부-박근양(회계 3) 후보가 총 1847표(56.31%)를 획득해 1378표(42.01%)를 획득한 '우먼센스'를

제치고 당선됐다. 무효표는 55표(1.67%)로 집계됐다. 또 지난 9일 치러진 총대의원회 선거에서는 '육하원칙' 정-김민석(정치외교 4) 부-오승준(회계 3) 후보가 과대표 208명 중 188명(90.38%) 투표로 찬성 174표(92.55%), 반대 14표(7.44%)로 당선됐다. 또 지난 11일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는 'YOU&I' 홍영기(경영 2), 정우석(철학 3) 후보가 총 유권자 359명 가운데 251명(70%) 투표로 찬성 193표(76.9%), 반대 55표(21.9%), 무효 3표(1.2%)를 받아 당선됐다.

다음은 단과대학 선거 결과다. ▲인문대학 '사람' 정-김수범(일어일문 2), 부-정민용(사회 2)

한 결과, 총 702표(55.40%)를 획득해 540표(42.62%)를 획득한 '어깨동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무효표는 25표(1.97%)로 나타났다.

▲사범대학 '승승장구' 정-홍성훈(국어교육 2), 부-최승은(윤리교육 2) 후보가 총 유권자 577명 중 493명(85.44%)이 투표한 결과, 찬성 397표(80.52%), 반대 92표(18.66%)로 당선됐다.

▲생명대학 '더가까이' 정-오연우(원예환경전공 3), 부-송상목(응용생명공학전공 3) 후보가 총 유권자 478명 중 439명(91.84%)이 투표한 결과, 259표(58.99%)를 획득한 '청춘불패'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무효표는 7표(1.59%)로 나타났다.

▲해양대학 '해결사' 정-김봉진(해양생선과학전공 3), 부-유병선(토목공학전공 2) 후보가 총 유권자 767명 중 554명(72.22%)이 투표한 결과, 찬성 452표(81.58%), 반대 89표(16.06%), 무효 13표(2.34%)로 당선됐다.

▲자연대학 '텔레파시' 정-김형우(체육학부 3), 부-홍정완(전산통계 3) 후보가 총 유권자 1221명 중 1005명(82.30%)이 투표한 결과, 찬성 818표(81.39%), 반대 176표(17.51%), 무효 11표(1.09%)로 당선됐다.

▲공과대학 '네버스탑' 정-김민현(건축공학 3), 부-신윤경(화학공학 3) 후보가 총 유권자 1407명 중 1073명(76.26%)이 투표한 결과, 찬성 845표(78.75%), 반대 207표(19.29%), 무효 21표(1.95%)로 당선됐다.

▲수의과대학 'VEasT' 정-정석훈(수의학 1), 부-김세운(수의학 1) 후보가 총 유권자 164명 중 151명(92.07%)이 투표한 결과, 찬성 138표(91.39%), 반대 13표(8.60%)로 당선됐다.

▲예술학부 '전대미문' 정-김성국(조소 2), 부-이관홍(관악 3) 후보가 총 유권자 259명 중 195명(75.28%)이 투표한 결과, 찬성 170표(87.17%), 반대 23표(11.79%), 무효 2표(1.02%)로 당선됐다.

▲간호대학 'The Endorphin' 정-임현경(간호 2), 부-김다혜(간호 2) 후보가 총 유권자 160명 중 143명(89.37%)이 투표한 결과, 찬성 129표(90.20%), 반대 14표(9.79%)로 당선됐다.

▲야간강좌부 'MVP' 정-백선호(야 관광경영 2), 부-주지용(야 경영 2) 후보가 총 유권자 245명 중 122명(49.75%)이 투표한 결과, 찬성 95표(77.86%), 반대 25표(20.49%), 무효 3표(2.45%)로 당선됐다. 박원 기자

캠퍼스 일부 무선인터넷 개통 '감감'

설치와 복구 늦어 학생들 피해

10월 초에 예정돼 있던 해양대 4호관 무선인터넷 개통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미 해양대 4호관에 AP기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활용은 되지 않은 채 방치 중이다. 이렇게 개통이 미뤄지게 된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원은 공문이나 다른 기타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학생들의 답답함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양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의견이 올라왔다. 이 학생은 "10월에 예정돼 있던 개통이 늦어졌다면 적당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했을 것"이라며 "개통 날짜를 믿고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양대 4호관을 이용하는 한 학생은 "무선인터넷이 개통되지 않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려면 유료 인터넷망인 3C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접속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윤성보 시스템테스트팀장은 "관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의 부탁

으로 KT에서 관로를 확보하기 전에 무상으로 해양대에 AP기기를 설치해 주었다"며 "그런데 시설과에서 막상 관로를 확인해 보니 당초에 예상했던 큰 관로가 아니라 작은 관로만 설치되어 있어 적당한 관로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우선 개통 지연 이유에 대해서 제 때 학생들에게 알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해양대 4호관 개통은 오는 16일 정도에 완료될 예정이다"고 답했다.

해양대 외에도 우리학교 무선인터넷 환경에 문제점이 있다. 현재 학교의 무선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해양대 4호관 외에도 기숙사와 새로 건축된 법학전문대학원, 인문대 2호관이 있다.

완공 된지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많은 학생들이 신축 건물에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곳에 대한 무선인터넷 설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문대 2호관은 가장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중 하나다.

현재 학교에 설치된 500여개의 AP기가 55대가 고장이다.

이는 초기에 설치된 221대의 기기와 같은 종류로 무상제품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AS지원이 되지 않아 학교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스템테스트팀장은 부분적인 해결이 아닌 전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장 난 기기들은 너무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고친다고 해도 예산만 낭비할 뿐 완벽한 문제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

윤성보 팀장은 "인문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무선인터넷 환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타 대학의 대처를 살펴보고 검토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내년까지는 학교전체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출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AP기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당장 무선인터넷 이용을 원하는 학생들은 무선공유기를 통해 보안인종작업만 완료되면 이용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정문앞 순환버스정류장 관리 엉망

뜯겨진 시설물 방치에다 업소 전단지 '눈살'

정문 순환버스정류장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와중에 관리주체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

구내 순환버스 정류장은 올해부터 아침 7시 50분부터 저녁 6시 45분까지 확대 운행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이용한다. 그러나 지난 2008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했던 비가림막이 도리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바람이 불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탓에 위험을 느끼는 학생들이 비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순환버스 정류장 앞면에는 전단지를 붙였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곳은 전단지를 붙일 수 있도록 허가돼 있기는 하나 사용 후 아무렇게 떼어낸 전단지 자리에선 정리되지 않은 테이프와 조각난 종이들이 오랫동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인문대학의 한 학생은 "정문 버스정류장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 테이프가 며칠째 그대로 붙여져 있어 보기 안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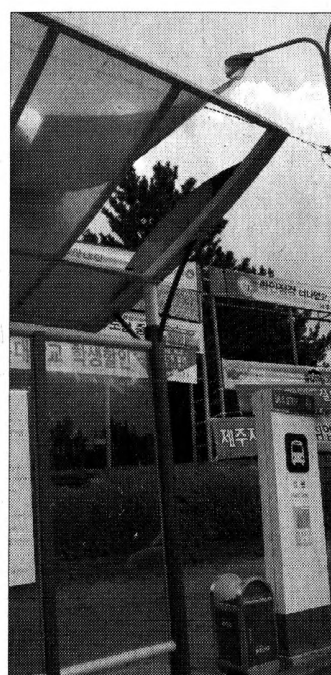
다"며 "이곳을 소홀하게 관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른 학생 또한 불만이 많다. 김경훈(생명공학 1)씨는 "비가림막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학생들의 편의시설인 만큼 보수와 관리가 철저히 돼야 진정한 편의시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버스정류장의 비가림막의 관리에 바로 총학생회와 시설과로 주체가 분명치 않아 혼란이다. 총학생회가 관리를 하기는 하나, 보수도 되지 않는 비가림막과 전단지를 붙여놓았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부회장 강혁진(지구해양과학 3)씨는 "순환버스 정류장 관리에 신경 쓰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것 같아 사과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리 주체인 시설과에서 이에 대해 빠르게 조사해 대응



정문 비가림막이 바람속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영화 시설과장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한 후 보수가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제주대 뉴스 클리핑

법률상담센터, 거주외국인법문제클리닉

법률상담센터(소장 오창수 교수)가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법 문제를 상담해주는 '거주외국인법문제클리닉'을 설치해 운영한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능력을 키우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법학전문대학원 2층 리셉션 리나센터에 마련된 거주외국인

법문제클리닉은 박선아 교수를 팀장으로 해 김상현, 강전애, 백재홍 등의 상담위원으로 구성됐다.

클리닉에서는 거주 외국인 대상 노동법, 이민법, 아동법 등에 대해 법률상담과 교육이 이뤄진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의과대, 중문상고와 교류협정 체결

의과대학(학장 홍성철 교수)과 중문상업고등학교(교장 김성익)가 지난 10일 의과대 교수회의실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의과대학은 이번협정을 통해 제주 보건교육의 선진화를 도

모하고, 두 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중문상고는 내년 3월부터 중문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보건의료 특성화 고교로 개편한다.

직장어린이집 사진 공모전 우수

직장어린이집(원장 김성옥)이 지난 12일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에서 주최한 '2010년 직장보육시설 사진 공모전'에서 사람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람 부문에 제출한 '2010년 직장보육시설 사진 공모전'에서 사람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오는 20일 소리너울 정기연주회

소리너울(회장 김명진 국어국문2)이 오는 20일 오후 7시 이니뮤즈홀에서 26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총 18명의 학생이 4개의 파트로 나뉘어 이제까지 뛰어난 기타실력을 뽐내는 시간을 갖는다.

인문계열 취업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중간보고회



'문화콘텐츠·기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정' 중간보고회에서 허향진 총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인문대학(학장 김석준)은 지난 12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문화콘텐츠·기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허향진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1, 3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제주도의 현실에서 새로운 대두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콘텐츠 개발, 기획 부문의 허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인문학적 기초를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과정이 인문계열 전공자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9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문화기획 인력 양성 트랙(담당 김치환 교수), △기자·△사회복지기획 인력 양성 트랙(담당 최현숙 교수)의 4개 트랙(교육위원 102명)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성과정은 산학 협력과 취업을 연결해 실무적 경험을 전달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보고회에서

는 프로그램의 전문성 부분에서 협력업체와 학생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4개 트랙만이 아니라 관광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주에 있는 산업체 실습 과정에서 학회 기획 또는 관광기획, 스토리텔링 기획, 국제 언어·문화 기획 등 다양한 분야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더불어 향후 예정돼 있는 산업체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실무를 익힐지가 취업을 향상에 큰 지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삼나무 꽃가루, 아토피 유발한다

환경보건센터, 지난 9일 조사결과 발표

의화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홍성철)는 지난 9일 제주지역 환경성 질환의 원인이 집먼지 진드기, 삼나무 꽃가루 및 공기 중에 있는 알테르나리아(Alternaria) 곰팡이 순으로 조사했다. 이들 물질이 제주지역 아토피 질환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2008년부터 제주지역 아토피 질환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인 환경보건센터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보건센터는 이날 발표에서 지난 4월 초 인천, 울산 지역의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 초·중·고교생 가운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학생은 27.8%로 나타났고, 인천은 30.9%, 울산은 23.2%였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지역의 알레르기 원인물질 가운데 삼나무 꽃가루는 갈금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알테르나리아 곰팡이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있는 양상을 보였다. 또 삼나무 꽃가루는 2월말부터 4월까지 날리고, 3월초에 최고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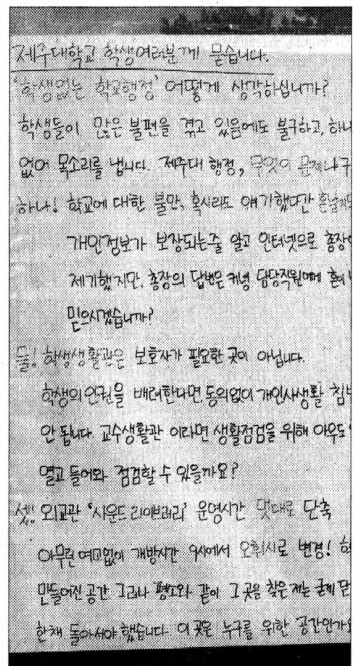
환경보건센터는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황사경보를 발령하는 것

처럼 삼나무 꽃가루 등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제주기상청과 연계해 삼나무 꽃가루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주대병원도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성 질환자 발생을 점검한 결과 알레르기비염 진료 건수가 9만1327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천식은 8만4784건,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8만4066건, 아토피 피부염은 3만4373건의 순으로 분석됐다.

환경보건센터는 앞으로 삼나무 꽃가루 등 주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중심으로 시기별, 지역별 분포를 관찰할 계획이다.

'대자보의 부활' 학내 각종 문제 표출 교직원 친절 및 행정 투명성 등 자성 촉구



지난 11일 정문 순환버스정류장에 붙여진 대자보.

정문 순환버스정류장에 등장한 대자보가 잔잔한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익명으로 지난 11일 게시된 대자보에는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라며 학교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다음은 대자보에 쓰여진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을 기사가 들어왔다.

하나! 학교에 대한 불만, 흑사라도 얘기했다면 혼날지도 몰라요!
개인정보가 보장되는 줄 알고 인터넷으로 총장에게 불만을 제기했지만, 총장의 답변은커녕 담당직원에게 혼이 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총장 비서실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기되는 불만은 질문자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해당부서에 물은 후 답장 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둘! 학생생활관은 보호자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학생의 인권을 배려한다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침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생활관이라면 생활점검을 위해 아무도 없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점검할 수 있을까요?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생활점검은 학생들의 공동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아무도 없는 방에 대해서 생활점검을 펼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방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사전통의를 얻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셋! 외교관 '사운드 라이브러리' 운영시간 멋대로 단축
아무런 예고 없이 개방시간 9시에 오후 1시로 변경! 학생등록금으로 만들어진 공간, 그러나 평소와 같이 그 곳을 찾은 저는 굳게 닫힌 문만 확인 한 채 돌아야 했습니다. 이곳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외국어교육원 관계자는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던 아르바이트

생이 갑작스럽게 일을 관둬서 2~3일 정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며 "문제가 지적된 후 바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넷! 불친절한 태도, 행정실 가기 정말 싫다!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간 학생들이 몇몇 직원들의 불친절에 불쾌함을 느꼈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무표정한 얼굴로 툭툭 무심하게 뱉는 반말에 상처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총무과 이창기 계장은 "올해부터 직원 친절 교육을 강화시켰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좀 더 직원들의 친절 교육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섯! 2008년 세계테마기행 교대특혜!
2008년 교대통합 직후 시행된 세계테마교육기행 팀 선발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원한 모든 교대팀들에겐 특혜를 주고 이를 모르고 밤새 열심히 준비한 제대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기회를 박탈당해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공고시에 교대위주로 선발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면 소중한 시간 낭비하며 준비하지 않았을테지요.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세계테마기행에서 교육대학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고 있어 이런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며 "그러나 이는 교육대학

학생들의 학점이나 영어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학생복지과로 찾아온다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여섯! 떠넘기기식 행정 '캐나다 여학연수'
캐나다 교생실습을 위해 120만원 상당의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학교 행정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에 교생실습을 가지 못했고 여러 가지 피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교현정씨는 "원래는 학사과에서 처리해야 했지만 영어문제로 인해 우리가 맡게 됐다"며 "다만 지연된 것은 캐나다 대사관에서 여권 발급이 지연되다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일곱! 중앙도서관 '행정직원 맞춤형 도서관?'
학생들이 전리를 탐구하는 공간에서 학생의 편의를 먼저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료실 이용시간 연장, 주말 개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학생들을 위해 토요일 오전까지는 자료실을 개방하고, 평일에도 직원이 남아 야간 근무를 서고 있다"며 "다만 이용자 수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평일 야간이나 주말 개방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답했다.

강보배 기자

안전규정 무시한 블라드, 보행자 '위협' <차량진입방지 시설>



교양동에 설치된 돌로된 블라드.

교양동에 설치된 '블라드'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블라드는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말뚝이다. 학내 블라드는 대부분 돌이나 쇠로 만들어져 부딪치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지난 2006년 1월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블라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밝은 색 반사도료 등을 칠해야 한다. 높이도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지름은 10~20센티미터 내외여야 한다.

그러나 학내에 설치된 블라드는 대부분 이러한 규정들을 어기고 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제작돼야 하는 블라드가 딱딱한 돌이나 쇠로 만들어져 있다. 밝은 색 반사도료도 벗겨진 곳이 많다. 때문에 어두운 밤길을 걷던 행인들은 블라드를 못보고 부딪치기 일쑤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블라드는 지뢰나 다름없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블라드의 0.3m 앞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충돌의 우려가 있음을 알리는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블라드 앞에 점형블록이 설치된

곳은 학내에 없다. 이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블라드를 교체·보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재연(사회 2)씨는 "감각한 발걸음 걸다가 블라드가 잘 보이지 않아서 무릎이 부딪힌 적이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블라드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설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교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영화 시설과장은 "시행규칙

제정 전에 설치된 블라드가 많다"며 "예산을 확보해 블라드를 교체하고 앞으로 블라드를 설치할 때에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총무과에서는 학내 블라드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미란(총무과) 직원은 "학내에 블라드가 설치된 곳을 모두 돌아봐서 부실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점검하겠다"며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해 12월 중 예산이 확보되면 보수하겠다"고 말했다.

고홍희 기자

국제 자연염색 심포지엄 의류학과, 우수포스터상 수상

의류학과 임은숙(의류 3), 강은영(의류 석사과정), 이가영(의류 3), 김혜림(의류 2)씨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광역시 주최로 대구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열린 '2010 국제 자연염색 심포지움 & 전시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이혜선 교수의 지도로 제주화산송이를 이용한 MICE사업단의 캡스톤 시제품을 전시하고, 포

스터 발표에서 Natural Dyeing of Fabrics Using Jeju Scoria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한편, 지난달 16일에는 경북 청도군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주최한 '2010 갈뿔염색 패션 콘테스트 공모전'에서 의류학과 학생 10명이 출품해 금상 김재현(의류 4)을 비롯한 은상 고상무(의류 3), 동상 한혜림(의류 3) 입선 최군한(의류 4), 정연(의류 3) 등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김혜림(의류 2), 이가영(의류 3), 이혜선(지도교수), 강은영(의류 석사과정)



학생회관이 돼지전문점으로 둔갑

○...학생회관에서 고기 냄새와 연기가 풀嗎?
학생회관이 동아리 부원들의 고기파티장으로 변해서 연기와 냄새들로 가득 차 지나가는 학생들이 코를 막고 지나갈 지경.

동아리 부원들이 모임을 갖기 위해 학생회관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 파티를 벌였던 것. 게다가 음식물이나 쓰레기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

학생들은 모임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가고, 학생복지과는 제대로 관리가 필요할 듯.

○...탈수 도중에 꺼지는 생활관 세탁기
학생생활관에는 빨래가 다 되지 않아도 자동으로 꺼지는 세탁기가 있다고.

알고 보니 양심 없는 일부 학생들이 자신의 빨래를 하기 위해 남의 빨래가 탈수되고 있는 도중에 세탁기를 마음대로 꺼버린 것. 피해를 본 학생들은 탈수가 덜 돼 축축하게 젖은 빨래를 보며 한숨만 뿜.

탈수 시간 몇 분을 못 견디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비양심적인 행동은 그만 됐으면.

○...학생회관 1층 현관, 재떨이 공간으로 변신
학생회관 1층 현관 앞이 재떨이 공간으로 변신했는데.

알고 보니 지난 17일 새벽 총선거 결과와 나온 후 일부 선거운동본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풍초를 학생회관 1층 현관 앞에 미구 버려둔 것. 수북히 쌓인 담배 풍초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풍초와 함께 자신의 양심도 버렸다"며 일침.

몇 발짝 걸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양심을 버리면 되겠소.

제30회 백록문학상 및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6주년을 맞이하여 제30회 백록문학상 및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제30회 백록문학상 공모

1. 응모자격: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2. 응모분야: 시(1인 5편 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2010년 12월 3일(금) 18:00까지
4. 접수장소: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 (취업전략본부 3층)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물을 동시에 제출
5. 발표: 제주대신문 847호(2011년 1월 5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각 부문 당선작(50만원),佳作(30만원)
*단, 작품 수·작품의 수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 가능함

제30회 백록학술상 공모

1. 응모자격: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2. 응모분야: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출력물과 논문파일은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3. 시상: 학부생/대학원생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당선작 각 1편: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佳作 각 2편: 총장상 및 30만원
4. 심사 및 시상: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5. 접수 마감: 2010년 12월 6일(월) 18:00까지
6. 당선작 발표: 2011년 신년호

돈대박

공짜 셀프 파전, 계란찜, 갈비찜

고기만 드셔도 생맥주 공짜!

삼겹살
가브리살
항정살

돌판갈비찜
돌판닭찜

돈대박

제주시 이도2동 1769-1
T. 759-2382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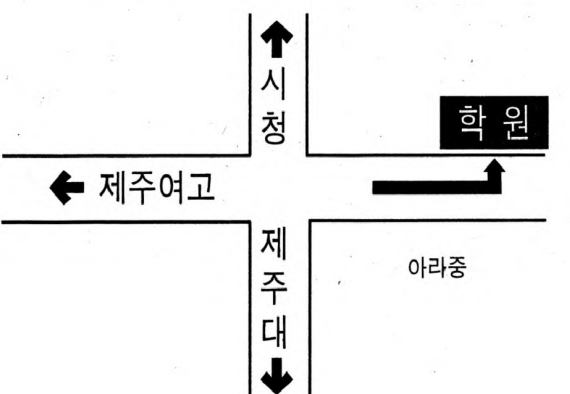
아구장

돈대박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가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 기업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⑤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남다른 농촌사랑 제주농협...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 금융자격증 가지면 취업 유리

농협.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참 친숙한 이름이지만 정작 많은 학생들은 농협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 심지어 많은 학생들이 농협을 단순히 은행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과연 농협이 어떤 곳이고,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고 농협에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농협, 단순한 은행 아니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을 줄인 말로 농축산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운영하는 단체다. 농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단체인 만큼 그들의 업무 또한 농민들을 위해 이뤄진다.

먼저 농협은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농촌사랑운동을 전개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자매결연을 맺어 좋은 농산물이 도시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농축산과 관련한 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매일 우수한 농업인을 선정해 새농민상을 주거나 영농현장에 대한 컨설팅,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농협은 다양한 경제 사업도 펼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농축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현대화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축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 GAP 인증, 무항생제 축산물 사업장 HACCP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키워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 등 대형 판매장과 사이버쇼핑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 이런 좋은 농산물을 다양한 식품으로 가공하는 식품 회사 설립에도 힘쓰고 있다.

농협에서 하는 일 중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신용사업 분야다. 먼저 농협은 농업인들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주택자금, 농기업론 등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며, 농축산업 재해와 관련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농협의 신용사업은 예금·대출·카드·외환 등 일반 시중 은행에서



농협제주본부는 그동안 '제주농협인 아름다운 기부문화운동본부'를 구성해 기부문화 확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급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보험사업, 증권사업, 농림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신용보증업무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 외국 자본 없이 순수국내자본으로만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표 금융기관이다. 허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기획총무팀 차장은 “농협에서는 은행관련업무도 다양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른다”며 “농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농협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우선돼야 된다”고 말했다.

지역을 사랑하는 농협

농협은 농협중앙회 산하에 1100여개, 지역농협본소 1200여개, 지소 3100여개 등 5400여개의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영업망은 다른 은행처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돼 있어서 도시든 농어촌이든 어디에서나 농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공익금융상품인 ‘농촌사랑예금, 사촌통장, 지역사랑 예금, 농촌사랑 클럽체크카드’ 등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과 농업 지원을 해 지역사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농협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은행 사회공헌보고서”에서 2006년, 2007년 1위를 차지하는 등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농협은 여러 농협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제주농협은 나눔경영, 친절경영, 클린경영, 문화경영이라는 목표 아래 도민과 함께하는 농협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농협은 2006년부터 모든 임직원이 소득의 1%를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하는 ‘내가 가진 1% 나누기 운동’을 비롯해 ‘사랑의 김장 나눔 한마당’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로부터 ‘착한 농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농민을 위한 마음이 기본

농협은 일부 주주와 기업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농민들이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해 농민들을 위해 힘쓰는 곳이다. 그런 만큼 농협 직원이라면 농민을 위한 마음이 필수다. 이러한 마음이 바탕이 돼야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허규 차장은 “정말 농협에서 일하고

싶다면 농협이라는 단체의 본질부터 알아야 한다”며 “농협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준에 맞춰서 지원하자

농협 채용의 특징은 모든 채용에서 아무런 자격요건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채용이 지역농협 6급, 농협중앙회 6급·5급으로 구분해 이뤄진다. 채용과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지원 수준에 따라 세부 절차는 다르게 진행된다.

채용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농협 6급은 지역단위로 모집하며, 필기시험에서는 인·적성검사, 직무능력검사를 진행한다. 면접은 1차만 이뤄진다. 농협중앙회 6급은 전국단위로 지역단위로 모집이 진행된다. 필기시험과 면접은 지역농협 6급과 같다. 농협중앙회 5급은 전국단위로 모집하며 필기시험에서 논술시험이 추가되고, 면접도 2차에 걸쳐 이뤄진다.

농협중앙회 5급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증과 국제 FRM, CFA, CRA, CFP 등의 전문금융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농협중앙회 6급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위의 자격증 외에 CFP보다 시험이 더 쉬운 금융자격증과 정보처리(전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지역농협 6급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2차 필기시험에서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집합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증권투자상담사, 증권분석사, 등과 국가기술자격증 산업기사 이상(농업기계, 농림, 정보처리, 안전관리 직무 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중에서 3~4개를 취득하는 것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허 차장은 “농협은 어떤 채용이냐에 따라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데 일부 학생들이 자신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낮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높은 수준을 가진 학생이 낮게 지원하는 것도 탈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부속시설 탐방 ④소리어울림멘토링센터

“취약계층 청소년에 음악으로 희망제시”



‘음악 멘토링 교육’ 중에서 음악 선생님이 학생에게 노래지도도를 하고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장애라는 높은 벽을 뛰어 넘은 사람들이 음악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힘든 상황도 잊은 채 자신들의 희망과 꿈을 펼치는 사람들은 음악 속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말을 스스로 증명하는 듯하다.

이러한 그들에게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서포터해주는 사업단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음악에 흥미는 있지만 가정형편과 장애로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소리어울림센터(센터장 김정희 음악학과 교수)이다.

지난해 6월 설립된 센터는 음악학과 졸업생들이 선생님이 되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씩 학생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피아노, 기타, 성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개인수업으로 지도하고 있다.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창의성과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링 사업이다. 이를 중심으로 사업단을 운영하다가 점차 방문음악회, 음악캠프 등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난 9월 센터로 승격됐다.

현재 센터에는 320명인 정원을 훨씬 넘는 학생들이 멘토링을 신청하고 있다. 한달에 약 20만원의 수강료 중 10%만 본인이 부담할 뿐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원이 정해진 만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없어 안타까울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선발된

학생들에게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음악을 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또한 소리어울림센터는 평소엔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음악회도 열고 있다. 한 달에 한번 요양원이나 보육 시설 등에서 펼치는 음악회는 귀가 들리지 않아 리듬을 맞추기 어렵지만 난타를 곳곳이 연습해 온 동아리들과 아이들이 공연을 하며 오랜 기간 동안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내기도 한다. 이 음악회는 연주를 하고 공연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편 소리어울림센터 팀원들에게도 큰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그들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약 6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센터에 소속돼 있지만 단장을 포함한 총 4명이 일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학생들 한명 한명에게 세심한 신경을 써주고 싶은 그들이기에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교류하고 더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혜택을 나눠줄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계획 중이다.

김민범 홍보팀장은 “센터로 승격된 후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전에는 지원이 부족해 진행할 수 없었던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 2011 정시모집 지원전략

나군 992명 · 다군 815명 등 1807명 모집

다군은 수능 100%로 선발, 복수지원 · 이중등록 구제 안돼

제주대로 오는 마지막 기회인 2011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이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8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대형업체인 유웨이(www.uway.com)와 입학안내 홈페이지(www.ibt.jejunu.ac.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이뤄진다. 첨부서류는 다음달 31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2011학년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에 모두 응시한 자로 제한한다.

전형을 살펴보면(나군)과 교육대학(나군)의 경우 면접고사로 12원을 포함해 42원, 예술학부, 체육학부(나군), 산업디자인학부의 경우 실기고사로 42원을 포함한 72원이 필요하다. 이를 제외한 모집단위에서는 전형료로 32원을 낸다.

모집인원은 나군 992명, 다군 815명으로 총 1807명을 모집한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면접고사는 내년 1월 11일 각 대학에서 진행된다. 단 교육대학은 1월 7일 발표된 1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이뤄진다.

예·체능계열에 대한 실기고사는 나군은 1월 11

일, 다군은 1월 21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나군은 음악학과와 체육학부를, 다군은 미술학과와 산업디자인학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합격자 발표는 나군, 다군 모두 내년 1월 28일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추가발표 1차는 내년 2월 10일 공고될 예정이다.

지원할 때 이것만은 명심하자

이번 정시모집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원서접수가 이뤄진다. 원서접수가 완료되면 지원사항 중 모집군(나·다군), 모집단위(학부·학과·전공), 지원자에 관한 사항, 응시유형, 응시영역 등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원서작성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기재사항이 잘못됐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또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나군 예·체능계 실기고사 응시 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증명사진을 업로드 해야 된다. 면접·실기고사 때 본인 확인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이다. 만약 업로드 하지 못했을 경우 면접·실기고사 당일 날 증명사진에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중복지원 등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대학은 입학 복수지원과 이중등록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군별로 한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수시 모집에 합격한 경우 정시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또 모집단위에서도 한군데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입학관리과 관계자는 “예전에는 복수지원이나 이중등록을 하더라도 대학 등록 후 발견이 돼 일부 구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입시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을 규제한다”면서 “교외성이 없이 실수로 인해 복수지원이나 이중등록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합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발방법 알고 지원하자

선발은 나군의 경우 모집단위별로 수능, 학생부, 실기 및 면접고사 등 전형요소별 성적을 합산한 총점 성적 순위에 의해 이뤄지며, 다군은 모집단위별 수능성적으로만 총점 성적순위를 통해 선



지난 3월 제주대 체육관에서 열린 2010학년도 입학식 현장.

발한다(단, 예능계 모집단위는 학생부, 수능, 실기고사 등 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한 총점 성적순위에 의해 선발).

합격자는 각 모집단위별로 총점 성적순위에 따라 모집인원 100%를 선발한다. 단, 나군 교육대학의 경우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 전형에서 모집인원의 200%를 수능성적을 통해 뽑고, 2단계 전형에서 학생부, 수능, 면접 등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또 교육대학은 남·여 합격자 비율에서 어느 한 성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해야 된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성이 30%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다른 성에서 선발한다.

학생생활기록부는 학년별로 1학년 30%, 2·3학년 70%를, 영역별로 교과성적 92%, 비교과(출석) 8%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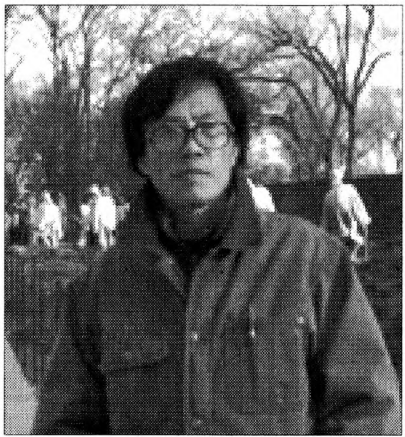
반영과목은 1학년의 경우 국어, 외국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에서 1과목을 평가한다. 2·3학년은 인문·사회계열(체육학부 포함)의 경우 국어, 외국어, 사회교과에서 2과목, 수학교과에서 1과목을, 예능계(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부)의 경우 국어, 외국어, 사회교과에서 2과목을, 자연계의 경우 수학, 외국어, 과학교과에서 2과목, 국어교과에서 1과목을 반영한다.

수능 반영방법은 예술학부·산업디자인학부의 경우 언어, 외국어 각각 100점씩 총 200점을, 체육학부의 경우 언어, 수리, 외국어 각각 100점씩 총 300점을 반영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단위는 언어 140점, 수리 140점, 외국어 140점, 탐구 80점씩 총 500점을 반영한다.

강보배 기자

‘느림’의 의미와 가치

걷기는 세계로 확장하는 것... “느리게 살아야 행복하다”



김현돈 철학과 교수

왜 느림인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올레길에 열광하는가? 그것은 ‘느림’에서 ‘패스트 바이어스’에 총체적으로 오염된 현대의 생활세계를 정화할 그 무엇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느리게 산다는 건 자신을 성찰하는 삶이며 타인을 배려하는 삶이다. 빠름은, 속도는 자신을 망각하는 삶이며 타인을, 무엇보다도 공동의 선을 몰각하고, 공동체를 무시하는 삶이다.

‘slow’란 말 속에는 ‘sustainable(지속가능성)’, ‘ecological(생태적)’, ‘local(지역적)’, 그리고 ‘aesthetic(심미적)’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천천히 산다면 그만큼 환경훼손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만큼 자신의 현존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를 되돌아보고, 타인을, 무엇보다도 더불어 사는 이웃의 삶까지 배려하게 된다. 반대로 빠르게 살려면 그만큼 더 환경을 훼손하고,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그만큼 나를 되돌아볼 여유를 상실하고, 공동체의 삶을 무시하게 된다. 느리게 산다는 것은 초고속으로 질주하고 있는 자본주의 문명의 광기를 제어할 대안적인 삶, 즉 자연친화적이며, 인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또한 빠름을 지양하여 느리게 산다는 것은 세속적 이해관계를 초탈하여 세상과 인생을 부드럽게 관조하고 음미하는 심미적인 태도를 말한다.

미적 태도란 어떤 대상이든 대상을 대상 자체를 위하여 무관심하게 주목하고 관조하는 것이다. 심미적 태도의 초공리성과 미적 관조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미적 관조는 세속에 관한 일체의 관심과 이해, 즉 공리성을 떠나 외물을 그저 무심하게 바라보는 심리상태이다. 대상과 주체 사이에 공리적인 이해가 개입

하면 미적 관조는 불가능하다. 빠름을 지향하는 삶은 목표와 성과, 그리고 현실적 이해에 급급하여 대상과 주체 사이에 일정한 미적 거리를 갖지 못하고, 대상과 주체 사이에 공리적 이해가 개입하여 미적 관조를 불가능하게 한다.

왜 걷는가?

슬로 라이프의 실천은 걷기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다들 압축적 성장의 와중에 ‘조국 근대화’의 역군으로 참으로 바빠 살아왔다. 삶의 질이나 삶의 건강성을 따질 새도 없었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찾을 마음의 여유는 더더욱 없었다. 몸은 돈 버는 기계와 다름없었다. 이제 기계로 혹사당한 몸을 해방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인지 걷기가 어느덧 우리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걷기의 참맛은 목적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 유유자적, 정처 없는 발걸음에 있다. 오직 걸어온 길과 지금 걷고 있는 길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한가로운 거닐기이다. 목적지를 정해 놓고 바빠 걷는 걸음은 웅색하다. 피에르 상소는 말한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목적지를 정확히 말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더 좋다. 아직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끝까지 그의 걸음을 안내하는 것은 ‘운명’이지, 결코 한 과정의 성취가 아니다. 그의 걸음은 열정 없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가 자신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던 게 무엇이었던지 발견하게 해줄 것이다. ...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고.

도시 안에서 내게 말을 걸어오는 참된 길과 오직 이동 통로로서의 역할만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게 말을 걸어오는 길이란 그 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결코 태어나지 못했을 사상과 감정을 만나게 되는 길이다. 오늘날 매끈하게 포장되어 앞만 보고 뻗어있는 길들은 이동 통로로서의 기능에만 충실할 뿐, 우리에게 아무 말도 걸어오지 않는 인정 없고 탐욕스럽고 매물찬 도회의 장사꾼을 연상케 한다. 그런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자동차의 길이이다. 한달음에 내달려 순식간에 목적지로 데려가 주는 곧게 뻗은 고속화도로에서 여행자들은 과연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그런 길 위에선 한시 바빠 목적지에 당도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생각도 감정도 솟아나지 않는다. 우리가 걷고 싶은 길은 이런 길이 아니다. ‘놀림 쉬



제주올레 6코스에서 내려다 본 서귀포 풍경

멍’ 쿿노래를 부르거나 다정히 속삭이면서, 때론 고독한 사유와 명상의 세계로 빠져들어 오솔길이나 울릉불릉 구불구불 돌아가는 상처 많은 그런 길을 걷고 싶다. 그런 길이라야 고단한 인생길에서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줄 것 같다.

우리는 왜 걷는가. 걷는다는 것은 나를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다. 직접보행이야말로 인간의 진화가 인간에게 선물한 가장 큰 사건이자 축복이었다. 인간은 두 발로 서면서 손과 얼굴이 자유로워졌고, 자유로워진 손과 얼굴로 비로소 타인과 세계와 교신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개조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성이 연마되었고, 감성이 개발되었다.

느린 것이 아름답다!

속도는 기계의 시간이며, 느림은 자연의 시간이다. 나아가 느림은 생명·평화의 시간이다. 자연의 순결, 생명의 리듬은 본래 느린 것이다. 한국은 지금 기계의 속도전으로 느릿하게 굽어져 흐르는 강의 생명·평화를 총체적으로 압살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돈으로 최단 시일에 최대의 ‘4대강 개발’이란 국토개조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사의 진척에 비례해 강도 생명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토건국가의 욕망이 빚어낸 이 거대 프로젝트는 반 문명, 반 생태, 반 생명, 반

평화, 반 인간의 부질없는 삽질이다.

노자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질박함을 깨안으며, 사사로운 욕망을 적게 하는” 평화롭고 소박한 문명을 추구한다. 사치와 소유와 경쟁의 지배양식을 거부하고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없는 자유로운 사회를 소망했던 것이다. 확대자향의 거대한 문명송배가 아니라,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소박한 사회를 꿈꾸었던 노자는 자신의 욕구들이 조화와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위를 주장하였다. 노자가 꿈꾸었던 무위자연의 삶과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장자의 ‘소유’는 오늘날 미친 듯 질주하는 초고속 디지털 문명의 범람에 하나의 대안적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작고 소박하며 느린 것이 아름답다는 미적 감수성은 또한 신자유주의란 자본의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간의 논리이다.

느림의 미학은 기본 좋은 자기충만, 영혼의 자유해방, 감성의 열림, 영성으로의 초대, 그 속에서 맛보는 나쁜 행복감 같은 정신적 가치이다. 느림의 향유는 단순 소박한 삶을 지향한다. 느긋하고 유쾌하게 즐기는 삶은 영혼을 살찌우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한가롭게 거닐며 자연의 부름에 나를 맡기고, 기다리다 또 기다리며 미래의 지평을 향해 마음을 여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본의 논리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말고 작은 것, 느린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미적 감수성의 개발이 절실하다.

한권의 책

16세기 이스탄불의 역사속으로

제주의 하늘이 찬란하게 들노는 가을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온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 간다. 아름다운 자연 한 폭을 늘 마음에 들릴 수 있는 제주에서는 보다 맑은 정신으로 좋은 책들을 실컷 읽었다고 다짐했지만 생각처럼 생활의 여유가 쉽지 않다.

얼마 전 우연히 손에 잡게 된 <내 이름은 빨강>은 삶에 바쁜 나에게 청명한 휴식처럼 다가온 책이다. 저자 오르한 파묵은 1952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태어나 부유한 대가족 속에서 성장했다. 이스탄불 공과대학에서 3년간 건축학을 공부했으나 23세에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포기한 채 아파트에 틀어박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7년 후 첫소설을 출간한 그는 꾸준하고 정열적인 집필활동을 통해 대중적 이면서도 실험적인 작가로 터키와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문명 간의 충돌, 이슬람과 세속화된 민족주의 간의 관계 등을 주제로 작품을 써 온 파묵은 2006년 “서로 다른 문명 사이의 충돌과 얽힘을 나타내는 새로운 상징들을 발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중 <내 이름은 빨강>은 저자에게 “진정한 이야기의 대가”라는 칭호를 붙여준 작품이다. 어린 시절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파묵은 일찍부터 이슬람 화가들의 세밀화를 모사하며 미술에 대한 안목을 키워 왔다. 이 책은 다류멘타리를 능가하는 이슬람 회화사의 생생한 기록이다.

이야기는 술탄의 명을 받아 비밀리에 베네치아 스타일의 회화집을 만들던 화가들 중 한 사람이 살해되면서 시작된다. 회화집 제작 책임관은 12년 동안 이스탄불을 떠나있던 조카 ‘카라’의 진상을 규명할 탐정으로 불려들이지만 사건의 ‘용수들이 속에서 자신마저 살해된다. 복잡한 심경으로 귀향한 카라는 오랜 세월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자신의 옛 연인이자 화생된 제작 책임관의 딸 세류레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라도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할 처지가 된다. 소설은 등장인물들이 번갈아 가며 화자로 등장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이 전개되어 가는 구성으로, 살해당한 시체, 주인공인 세류레와 카라, ‘내비’, ‘율리브’, ‘황새’라는 예명을 가진 세 명의 세밀화가는 물론,



<내 이름은 빨강>

오르한 파묵 지음 / 민음사

금화, 나무, 죽음, 소설의 제목에 쓰이기도 한 빨간색, 악마, 그림 속 개까지 말을 한다. 이러한 서사기법은 독자들에게 하여금 각각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생각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들 중 과연 누가 살인범인지 궁금증을 증폭시켜 나간다. 동시에 각각의 이야기들은 넓은 화폭 위에 정교하게 그려진 오브제들을 연상시키는데, 궁극적으로 이 소설은 한 폭의 섬세한 이슬람 세밀화를 감상하는 것처럼 다가온다.

파묵은 역사소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서사 방식에 추리소설의 기법을 가미하고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발휘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지적이면서도 문학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획득한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는 즐거움을 무엇보다도 세심 실감하게 한다. 이 소설에서 세밀화가들 사이의 갈등은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라는 층위 외에도 신에게 보다 다가가려는 근대 이전의 예술론과 작가의식이 짙은 이후의 예술론 사이의 충돌을 다루고 있다. 개인의 ‘창의성’과 ‘창작’을 놓고 벌어지는 대립이 파묵으로 치닫는 과정을 지켜보노라면 역사 속의 개인들, 즉 ‘인간’이 왜 투쟁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 다시금 성찰하게 된다.

점차 깊어가는 이 가을, 가슴을 울리는 좋은 책을 만나서 주변에 권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리고 싶다. <내 이름은 빨강>, 캠퍼스의 젊은 벗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김민형 스토리텔링학과 강사

지역경제 바로알기 ⑥제주사랑상품권 활성화

답례품 문화의식 개선에 제주사랑상품권 활용을

지난해 판매액 139억... 해마다 꾸준히 증가

전업주부인 이영아(52)씨는 근래 들어 동네마켓을 자주 찾는다. 대형마트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행여갔었지만, 2년 전부터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제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영아씨는 “이전 대형마트를 자주 가지 않는다. 제주사랑상품권 캠페인을 접하고 이 상품권이 제주의 중소상인들을 위한다는 것을 알았다. 제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재래시장과 동네마켓을 자주 애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주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에서 발행한 지역상품권이다. 이는 제주은행 전 지점에서 판매·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사랑상품권의 사용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06년 9월 발행되었을 때에는 재래시장에서만 상품권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제주지역 체인본부회협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제주사랑상품권 판매액은 6억7천만원이었다. 그 후 2007년에는 21억5천만원, 2008년은 77억5천만원, 2009년은 139억2천만원으로 해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답례품 문화개선운동 앞장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답례품문화개선운동으로 ‘제주사랑상품권활성화’운동을 이끈다. 경·조사 풍습인 부조의 답례로 세제, 치약, 화장지 등 주로 공산품을 사용하던 것을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 안에서 돈을 주고 받으면서 지역경제순환구조를 만들어간다.

삼도1동 새마을부녀회원은 “지속적으로 제주사랑상품권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들끼리 판매처인 제주은행에 가서 개인적으로 직접 구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회원 최희성(24)씨는 “잔치집에 갔다가 답례품으로 제주사랑상품권 3000원 권을 받았다. 상품권으로 받은 것도 좋았지만, 이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며 제주사랑상품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양윤정(25)씨는 “답례품으로 상품권을 받았을 때, 수건이나 치약 같은 것보다 간편하고 재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오일장에 가서 사용

했는데 정감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나 외에도 제주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경조사 시 답례품으로 물품을 주는 풍습은 제주지역의 고유한 것이다. 경조사 때 답례품으로 단순한 물품을 주는 것보다 지역경제순환구조를 지향하는 제주사랑상품권을 주는 것이 상부상조하는 제주지역의 색과 일치한다. 또한 제주사랑상품권은 3천원권과 1만원권 두 종류로 발행되고 있다. 5천원권부터 나오는 다른 상품권과 다르게 그것이 오히려 답례품 사용으로 적절하다는 평이다.

실제로 작년 한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답례품문화개선운동을 통해 제주사랑상품권 8억5천만원 어치를 구매하였다. 이는 재래시장과 골목슈퍼에서 사용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효과 위해 지속적인 관심 필요

지역경제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주사랑상품권. 주민들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도차원에서의 꾸준한 캠페인은 물론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답례품 문화개선운동으로 ‘제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민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제주사랑상품권이 생겼다고 가끔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생활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확충되어져야 한다. 예전에 비해 제주사랑상품권이용 가맹점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제주사랑상품권은 2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1250여개의 슈퍼에서 유통되고 있다. 행정에서는 상품권 발급만 늘릴 것이 아니라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제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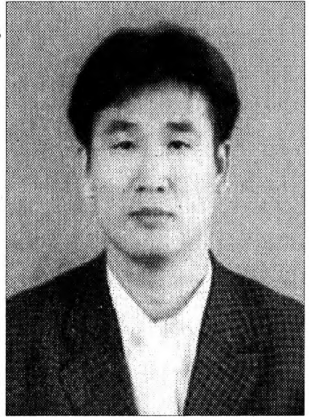
리기 위해 상인들 의식 교육 등 도 차원에서의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가맹점 가입에 특별히 까다로운 조건이나 비용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 가맹점가입에 대한 제안을 들었을 때 상품권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설고 절차가 까다롭게 느껴 거부반응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가맹점가입을 제안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을 위한 제주사랑상품권이 가진 의미와 그 효과를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변기연(언론홍보 4)

제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 최고의 물자원 이용한 '응용상품 산업단지' 마련해야

기업유치 위한 인센티브 및 지역기업 지원체계 구축 필요



김기옥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실장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수출1조원 달성, 제주녹색성장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스마트워터 산업비전 등 중장기적인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민은 누구나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게 사실이다. 과연 우리에게 대안이 없는 것인가? 현재 첨단 과학단지가 조성되어 일부 기업이 타진하고 있는게 사실이나 도외기업이 공격적으로 제주이전을 타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의 준비가 1%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다.

기업들이 이전 입지조건에서 자연조건,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장소를 택할 것이다. 우리 제주의 비교우위 입지조건은 과연 무엇이고, 특성화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당근이 없더라도 제주에 자발적으로 오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우리 제주경제가 제조관련 기업이 없어도 자체 성장 동력 발원이 있고, 우리 2세대가 타 지역으로 유학 가지 않아도 안정된 직업,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 구성원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어렵다는게 일치된 견해다.

제주경제규모(2008년)는 지역 1인당 총생산 16,430천원으로 경북(26,160천원), 강원(18,100천원), 그리고 재정 지립도가 우리보다 하위권에 있다고 하는 전남(29,590천원)보다도 작은 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현실이다. 그리고 제조업비율 역시 제주(3.12%)는 경기(32.64%), 충남(46.65%), 경북(48.94%), 전남(40.02%) 등과 비교해서 격차가 매우 심

하다는 견해다.

전국 주요 지자체의 산업단지(국가단지, 지방산업단지 포함) 분포를 보면 우리제주는 단지 1개소에 불과하고 타 지자체인 경기(96개), 충남(42개), 경북(32개), 전남(31개)과 견주어 보면 제주의 기업육성 및 유치 전략이 심각한 부재를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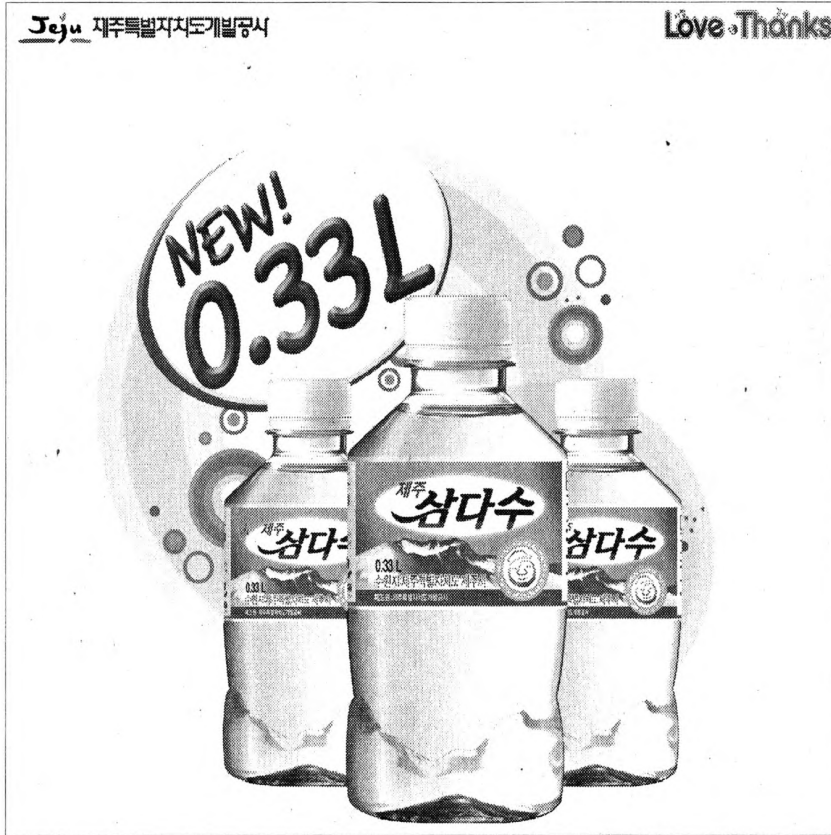
최근 제주녹색성장 산업단지 조성계획, 제주코스메틱밸리 조성 계획 등 2차산업 육성 계획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산업단지는 타지방과는 다른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가나 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창업과 기업유치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가 있어야 제주지역에 맞는 기업입지 여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감과 동시에, 다양한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기업유치에 나아갈 수 있다.

둘째로는 기업입지 기초환경을 보완해줄 획기적인 기업유치 인센티브 특성화가 필요하다. 제주지역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벤처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기업, 수출입기업의 전국비중에 비교해 매우 낮은 기업입지 여건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외국인투자는 기술집약적이거나 고도서비스의 대형투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가 성장동력산업으로 가고자하는 방향과 전략에 따른 산업관련 기초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을 제주 특별자치도법을 적용하여 무관세를 추진하여 사회경제적 입지여건 환경을 조성하여 타지자체와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자는 것이다. 나아가, 제주지역에 맞는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제시하고 그것을 법률개정으로 제정을 통하여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는 지역내 향토기업 집적화를 위한 단지가 필요하다.

제주지역에는 1900여개 향토기업이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각과 제조를 겸한 영농조합법인(2000개소)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들 기업들은 낮은 기술력, 가공시설 부족, 전문인력 확보, 연구개발 필요 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을 집적화시켜 상호 정보교류, 기술지원, 첨단 고부가가치 가공시설 및 생산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외 기업 유치도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향토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제주대표 물산업 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제주 삼다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여건 개선과 육성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기업집적화를 위한 제주녹색성장 산업단지가 조기에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는 세계 최고의 수자원이 유치기업에게 우수한 당근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자원, 풍부한 수자원 지역에 산업단지 구축이 필요하다.

물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바이오 관련 제조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좋은 물은 이미 선진국에서 이미 성공한 것처럼 식품과 화장품 산업에서는 브랜드 가치, 마케팅 전략에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최근 제주관광권 선도사업에서 추진 하는 물음용 상품개발에도 파급효과를 극대화 함에 있어서도 물을 연계한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제주의 다양한 농산물, 열대과일, 한방자원 등을 이용한 음료개발이 제주대학교 물산업 인력양성 사업단, 제주TP 선도사업단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최고의 아니라 동북아 최고의 산업을 선별하고 육성하려면 우리의 자원, 원천기술, 투자력 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천하려는 의지 등을 우리에 가슴에 담아야 할때라 생각한다.

다섯째는 유비쿼터스형 지역기업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라틴어에서 장소나 환경에 상관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이를 응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u-헬스(u-health)로서 최종 목표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를 이용하여 지역 기업정보, 제품개발, 애로사항, 기술수준, 장비구축, 인력현황, 성장장애요소, 주력품목 등을 분석하여 관련 기업지원 센터 또는 부서에서 역할분담에 따른 솔루션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관련 시장정보, 기술정보, 상품정보 등을 때와 장소에 관계 없이 수시로 전달하여 기업자체가 경쟁력을 갖게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구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우리 제주에 미래 성장동력을 선정하는데 많은 옵션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분야,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함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업 유치에 집중투자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시민네트워크와 통하다 ④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아이들 꿈과 희망을 설계하다”



지난 8월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출범식에 모인 회원들.

“아이들이 학교가 즐거우면 왜 공부를 안 하겠어요. 우리 사회의 시험에서는 교과서의 정답을 얼마나 잘 적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오직 수능점수만을 위해 경쟁에 몰아넣으니까 아이들이 지치는 겁니다.”

강봉수(윤리교육 교수)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회장의 말이다. 이 단체는 제주의 교육을 걱정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이 모인 단체다. 이 단체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결성돼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8월에 공식 출범해 현재 100여명의 풀뿌리 회원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활동 중이다. 경쟁 중심의 교육에 염증을 느낀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주축이다.

강봉수 회장은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며 “개인의 잠재력을 키우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한국 사회가 교육의 본질을 잃고 점수와 경쟁만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도 이러한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사람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 모인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등 제주 교육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문제제기를 한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들에게 등교시간 조정 등 6대 교육정책 의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제주 청소년 및 학생인권 조례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는 체벌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학생 등의 아래 소지품 검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도민들이 진짜 원하는 교육 시스템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민의 교육요구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중으로 설문 결과를 열어서 도민들에게 설문 결과를 알리고 제주 교육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강 회장은 “학생인권 조례는 인권의 프리즘으로 우리 교육을 보자는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교육은 강제 자율학습이나 0교시 등교 등으로 학생들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관련 강의를 열고 회원들끼리 모여 토론도 한다. 도민들이 생각을 나누며 앞으로 제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에서는 경쟁중심의 교육도 거론되지만 교육 불평등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강 회장은 “커다란 사교육 시장 때문에 요즘에는 정말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워졌다”며 “젊은이 대부분이 88만원 세대인 한국사회의 모습을 바꾸려면 교육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역시나 ‘교육문제’에 대한 고민은 빠지지 않는다. 풀뿌리 시민들이 모여 교육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언론의 과제’ 세미나

‘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이 가장 경쟁력

물산업, 미래 제주 먹여 살리는 ‘블루오션’으로 인식해야

언론홍보학과·언론개혁제주시민포럼 공동주최

물산업이 미래의 황금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은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이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언론홍보학과(학과장 김경호)와 언론개혁제주시민포럼(대표 고영철)이 공동주최하고 제주대 물산업 인제양성센터(센터장 이선주)가 주관한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언론의 과제’ 세미나가 지난 12일 오후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렸다.

이날 ‘물과 제주 물산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이지현(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강사)씨는 물산업 경쟁력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에서 ‘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이 가장 경쟁력이 크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기능성 음료 및 미네랄워터 개발’, ‘물 치료 휴양단지 조성’, ‘제주산 맥주의 상품화’를 꼽았다. 이어서 ‘융합해수의 산업화’, ‘온천수 개발과 이용’, ‘지하수 열을 이용한 청정에너지 개발 사업’ 순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이씨가 제주도 거주 만 20세 이상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수술헌 이용실태, 먹

는 샘물과 제주 물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98.5%가 가정에서 주로 ‘제주 삼다수’를 마신다고 밝힌 도민들은 ‘제주 삼다수’를 세계적인 유명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수질 및 성분’이 중요하다고 28.8%가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홍보/마케팅 방법’(24.5%), ‘세계적인 유통망 확보’(17.9%)가 차지했다. 즉 도민 대부분은 먹는 샘물의 품질과 홍보마케팅, 유통구조 개선 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도민들은 또 ‘제주 물산업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82.1%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1.7%만이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하는 등 물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물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도가 우선해야 할 일은 ‘물산업 전반에 대한 홍보 강화’라는 응답이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주 지하수 보전 및 관리체계의 구축’(21.6%), ‘경쟁력 있는 물산업 발굴과 개발’(20.5%), ‘제주 지하수개발에 대한 도민합의

(10.3%)’, ‘법적/제도적 차원의 물 산업 육성책 마련’(7.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제주의 중요 정책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43.4%)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12.4%)는 긍정적인 답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제주 섬 전체가 화산암으로 이뤄져 있는 이점을 활용해 물 산업을 관광산업과 더불어 미래 제주를 먹여 살리는 ‘블루오션’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면서 “이제 제주의 물은 소중한 미래 자원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서현 언론개혁제주시민포럼 간사의 ‘제주 물산업 관련 보도현황 및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간사는 “도내 신문사의 물산업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스토리텔링 기사를 사용하고 있어 단순정보 전달자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단순 사실을 보도한 기사가 많다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해설



언론홍보학과(제주위터 글로벌 브랜드화 트랙)와 언론개혁제주시민포럼이 공동주최하고 물산업 인제양성센터가 주관한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언론의 과제’ 세미나가 지난 12일 오후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렸다.

자료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최근 물산업 단지 조성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거나 각종 세미나에서 물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도태도가 많았다”면서 “취재원은 대부분 행정기관의 보도자료나 세미나, 토론회에서의 전문가 집단 빈도가 높게 나타나 지역언론 스스로 제주 물산업 육성 비전과 과제 등을 기획취재 보도하거나

공공의제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철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제주 물산업의 육성 방안과 지역언론의 과제’를 주제로 김진일 제주MBC경영기술국장, 윤정웅 제민일보 논설실장, 현창국 제주일보 뉴미디어국장, 위영식 제주도기자협회장, 강경식 제주주도의회 의원, 한재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용록 언론미디어위원장

■ 무론유설 ■

위대한 혁신은 모순해결에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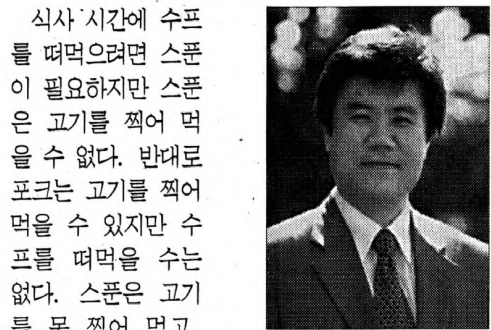
위대한 혁신은 문제의 본질에 숨어있는 모순을 해결한 데서 비롯된다. 돌 중 하나만 뚫히고 나머지 하나를 버리는 양자택일의 이분법적 사고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수준이다. 위대한 혁신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모순 해결의 사고에서 출발한다. 로켓이 지구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1분에 주파할 수 있는 로켓은 그만큼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 높이 33미터 나로호 로켓의 전체 무게는 140톤인데 연료무게는 130톤이다. 높이 52미터 아리안 로켓의 무게는 780톤이다.

육중한 로켓을 발사대에 세우려면 로켓은 자신의 엄청난 무게를 스스로 견뎌야 한다. 로켓의 속도를 높이려면 많은 연료를 담아야 하고, 이 때문에 커다란 연료탱크가 필요하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커다란 연료탱크는 그만큼 로켓의 무게를 늘려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기 어렵게 만든다. 이와 반대로 로켓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연료탱크를 얇게 만들면 많은 연료를 담지도 못하고 자신의 육중한 무게를 지탱할 힘이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로켓 과학자들은 로켓개발에서 속도와 무게의 모순을 풀어야 했다. 고민 끝에 나온 과학자들의 해결안은 헬륨가스를 연료탱크 내부에 팽팽하게 채워 풍선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하였다. 나로호와 아리안 로켓의 무게는 각각 2밀리미터와 1밀

리미터에 지나지 않는다. 중력을 벗어나기 위한 로켓은 맥주 캔처럼 얇은 두께이면서도 수백 톤이 넘는 무게를 지탱한다.

송승환은 한국의 연극 공연시장이 작아 돌파구를 찾고 싶었다. 더 큰 공연시장을 공략하려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연극을 해야 하지만 배우가 영어를 써가며 연극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막을 읽으며 공연을 보는 문화도 없다. 오페라 같은 공연은 우리의 경쟁력이 아니었다. 송승환은 공연시장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적인 공연을 선보이면서도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말이 필요 없는 게 될까 하고 고민했다.

송승환은 사물놀이를 떠올렸다. 사물놀이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것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은 어디일까? 부엌이다.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국자와 주걱 같은 도구들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 냄비와 주전자에 물이 끓으면서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가끔은 잠시나 유리잔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도 난다. 부엌이라는 공간은 두드림에 많은 생각을 했다. 송승환은 부엌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드라마로 엮고, 여기에 온갖 주방 도구를 난타하던 대사 없이도 스토리를 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송승환의 '난타'는 세계적인 공연이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공연이라는 모순을 해결했다.



현정석
경영정보 교수

식사 시간에 수프를 떠먹으려면 스푼이 필요하지만 스푼은 고기를 찢어 먹을 수 없다. 반대로 포크는 고기를 찢어 먹을 수 있지만 수프를 떠먹을 수는 없다. 스푼은 고기를 못 찢어 먹고, 포크는 수프를 못 떠먹는 문제가 있다. 떠먹는 것과 찢어먹는 것은 모순이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 스푼과 포크가 하나로 합쳐진 스푼포크는 1800년대 말에야 등장했다. 16세기 말 영국에서 흑연 광맥이 발견된 후 심 부부를 나무로 꼭 조인 흑연 연필이 등장했다. 연필은 쓰고 지우개는 지운다. 쓰는 것과 지우는 것은 정반대의 모순이다. 1858년 미국인 발명가 하이먼 리프먼(Hyman L. Lipman)은 연필 끝에 지우개를 달았다. 이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 리프먼이 벌어들인 돈은 무려 10만 달러에 달했다. "앗, 나도 생각했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모순해결의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혁신성을 갖는다.

■ 돌하르방 ■

투표일 불법선거전 유감

시골벽적하던 캠퍼스가 잠잠해졌다. 지난 17일 총선거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선거는 잘 마무리됐지만 한편에서는 불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맥 중심 선거운동과 선거 당일에 운동을 하는 일부 선거운동본부 때문이다.

투표를 하러 단과대학에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투표를 했냐고 물어봤다. 이제 투표하러 가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에 투표 부탁드립니다"라고 속삭였다. 선거 당일 운동이 금지돼 있지만 압입리에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다.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선거 당일인데도 노골적으로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을 대며 뽐나달라고 문자가 왔다. 분명 비밀투표가 보장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뽐냈는지 물어보

는 곳도 있었다. 투표를 하기 전에는 "~를 뽑아 달라"며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를 하고 나온 사람에게는 대놓고 '출구조사'를 한 것이다. 지성의 캠퍼스가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곳인지 의심스럽다.

학생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신껏 투표를 부탁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다. 그러나 선거 당일에 규칙을 어겨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당선이 절실하다고 하지만 학생의 대표로서 자치기구 활동을 하겠다고 출마한 선거운동본부가 당선을 위해 압입리에 규칙을 무시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선거 중에도 규칙을 어기는데 당선된 후의 모습은 눈에 선하다.

또 선거운동이 인맥 중심으로 흐르는 것도 문제

다. 일부 유권자들이 출마자의 출신 지역과 모교에 따라 투표하고, 정책보다는 단과대학이 어느 곳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책만 좋아서는 당선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제주지역의 '관당중심' 선거관과 다를바 없다.

무려 '대학'에서 인맥이 당선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 대학 구성원들은 막을 내린 총선거를 보며 부끄러워 해야 한다.

이미 총선거는 끝났지만 내년 선거는 이렇게 치뤄져서는 안된다.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과 후보자의 자질로 당선여부가 갈리도록 선거 문화가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고용희 보도기획부장

■ 독자기고 ■

환경운동 생활화에 나서야

흔히들 환경보호라는 주제를 진부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무지보다 무관심이 무섭다고, 그만큼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이다.

캠퍼스를 둘러보면 너무 깨끗하다. 이것은 학생들의 노력이 아닌 청소원들이 찬바람 맞아가며 새벽부터 단장 해주시는 노고 덕분이다. 학생들 중 캠퍼스내의 환경보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친한 경적인 캠퍼스를 만드는 것은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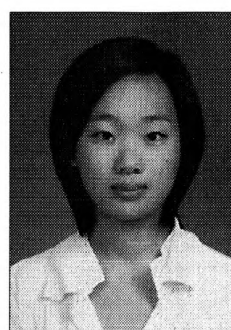
캠퍼스 안에서라도 우리가 사소한 습관을 바꿈으로써 간지 나는 '예코인'이 되어보는 것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쉬는 시간 마다 손에 들게 되는 종이컵 대신 개성 있는 개인 컵을 사용하면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다. 또 쓰레기를 다시 분리수거하는 것은 청소부들의 일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좀 더 신경 쓰면 될 일이다. 길거리에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일반적인 모습에는 적응이 안 된다는 교내 외국인의 말에 부끄러웠다. 우리의 습관이 타인에게는 한국인의 문화로써 비추진다는 것은 무서운 파장이다.

습관을 바꾸자는 것은 말이 쉽지 분명히 불편한 일이다. 그래서 환경운동은 사람의 의식 변화로 이끌지 못한 채 하나의 캠페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환경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에너지가 아끼면 대기오염 배출이 줄어 지구온난화의 진행이 늦춰지고, 재활용 하면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아도 되고, 오폐배출시설을 안 만들어도 된다.

이것은 경제적인 이익 또한 가져온다. 이러한 순환체계에 대한 이해는 환경보호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환경보호라는 말이 식상하게 다가오는 것은 결국 의식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식을 아는 것과 이것을 체내화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다른 것은,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환경과 우리의 관계, 물질소비에 익숙한 세계속의 우리 자신에 대해 반성적인 성찰을 거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소비해야 하는 생활방식에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사고 후에 환경을 바라보다면 사소한 습관의 변화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오늘 한 시간만이라도 환경과 우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강형주
사회 2

■ 신임교수 릴레이 인터뷰 - 강명수(법학전문대학원·법조실무 분야)

“겉멋 부리려 하지 말고 인간에 키우세요”

“급여가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겉멋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생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진 법조인이 됐으면 합니다.”

강명수(법학전문대학원) 신임교수의 말이다. 강 교수는 로펌을 그만두고 교수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로펌에서 더 높은 급여를 받는데도 논문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직이 더 좋다”고 한다. 강 교수는 “로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사회에서 진정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정한 법조인이라는 것은 똑똑하다고 잘난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법조인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성실하지 않고 사람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법 쪽에서 일을 하려면 생전 얼굴 한번 알지 못하는 사람도 친구의 친구 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법률관련 상담을 하게 돼요. 비록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간단한 대책을 설명해 주는 것 뿐이지만 그 사람들은 나에게 고마워합니다.”

강 교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3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번째로는 외국어 능력이어야요. 두 번째로는 전공분야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도 중요하합니다. 성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면 뽑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로스쿨에 들어올 학생들은 3년이라는 시간과 많은 학비를 내면서 내가 진짜 로스쿨을 가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강 교수는 현재 간접참회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다. 간접참회란 제3자가 특허 발명에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발명품을 구성하는 일부 물품이거나, 또는 특허 발명의 실행에 필요한 특정물건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침해를 말한다.

강교수의 전공분야는 지적 재산권이지만 현재는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법조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자신이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이다. 강 교수는 다음 학기부터 가르치게 될 지적재산권법에 대해서도 깊은 학문적 애정을 드러냈다. “지적 재산권법을 진짜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나를 보고 제주대에 찾아오게 만들고 싶어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이야기 할 때 강명수 교수가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하며 연구하고 싶습니다.”

강 교수는 학생들을 진정한 법조인으로 키우고,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권위 있는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강의가 기대된다.

김승지 기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오피니언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ress@jeju.ac.kr
홈페이지 http://news.jeju.ac.kr

■ 독자기고 ■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

세상은 항상 상등만을 추구한다. 하라하는 건 용납할 수 없으니 상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등하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한쪽에 치우치는 상등은 결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고3학생들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나 또한 그랬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학생들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공부만 하진 않았다. 학생들 중에 공부를 해도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도 있고, 대학을 위해 공부를 하지만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도 있다. 또 아예 공부엔 손을 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 공부 외에 자기 적성을 찾으려는 학생들도 있다. 그리고 모두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공부를 아주 잘 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학생들 사이에 학교의 반

응은 어땠는가? 아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반을 편성하고, 그 외에 학생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고3 담임선생님은 소위 상위권 학생들 진학상담으로 바쁘다.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시스템으로 학생들의 교육열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등한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학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들에게는 끝없이 투자를 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끝없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도시는 끝없이 발전하고 농촌은 쇠퇴해져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도시는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결국 계속되는 이혼향도 현상으로 농촌이 없어지게 되는 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코 앞에

당면한 문제이다. 도시가 경제성장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농촌이 사라져도 될만큼 농촌의 가치가 없을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당연히 올라가야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으로 치우친 상등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다. 조금 부족한 것엔 조금 더 투자를 하고 똑같이 상등에 목적을 두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송유미
생활환경복지학부 1

남녀탐구생활, 학생생활관편

화장은 변장 수준... 의자에 걸친 옷 다시 입고... 이걸 몰랐을 걸

학생생활관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인터뷰하고 인기 TV프로그램인 '남녀탐구생활'을 패러디해 봤다. 실제 생활 모습보다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다. 남녀의 생활관 문화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들여다보자.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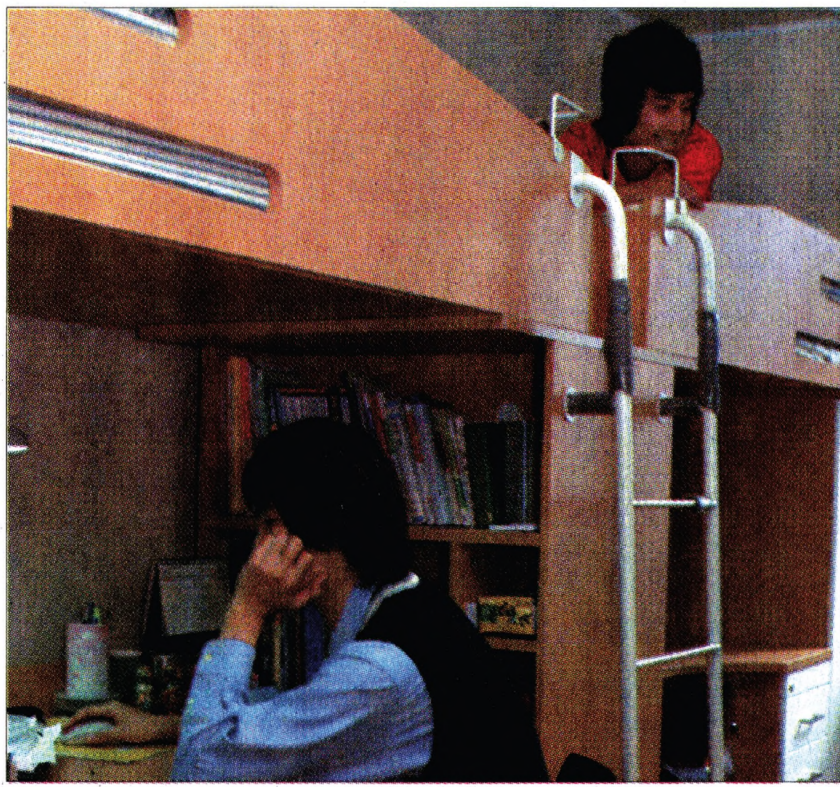
1. 여자편

먼저 여자의 생활이에요. 아침에 여자는 부스스한 머리와 뺨한 얼굴로 눈을 떠요. 먼저 일어난 룸메이트는 아침을 먹으러 가고 난리예요. 여자는 밥보다는 잠을 택하겠다고 다시 잠들어요. 거의 겨울잠을 자는 수준이에요. 혼자 남은 방에서 잠깐 눈을 감은 것 같은데 휴대폰 알람이 울려요. 종료버튼을 누르고 다시 눈을 감는데... 오 마이 갓. 시간을 보니 수업에 늦었어요. 여자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제부터 여자의 코스피드 변신이 시작돼요. 욕실로 달려가는 여자는 욕실의 신 '우사인볼트'가 빙의된 거 같아요. 말끔히 씻은 여자는 화장품을 꺼내요. 시간이 촉박하지만 화장을 바릴 순 없어요. 화장을 하는데 룸메이트가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요. 룸메이트는 뺨한 얼굴이 뽀얗게 변하는 장면을 목격해요.

"이건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야!"

여자는 반격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화장을 마친 여자는 어제 골라두었던 옷을 꺼내요. 어젯밤에 '내일 뭘 입을까' 고민한 보람이 있어요. 시계를 보자 순환버스가 올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하이힐만 신으면 완벽해요. 그러나 여자는 하이힐을 신고 정류장까지 뛰어갈 생각에 막막해요. 생활관 앞 가파른 경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이힐을 버릴 순 없어요. 하이힐의 높이는 여자의 자존심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슬리퍼를 신고 종이 가방에 하이힐을 담아요. 여자는 황급히 복도를 달려요. 바쁘지만 로비에 있는 거울을 보는 것은 잊지 않아요. 뒤따라 완벽하게 점검한 여자는 만족스럽게 문을 나서요. 문을 나서는 순간 여자는 상큼한 여대생이에요. 아침에 페인이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모든 수업이 끝나고 저녁시간이 왔어요. 룸메이트와 연락해 생활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밥을 다 먹으니 드라



학생생활관에서 학생들은 룸메이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개인생활도 즐긴다.

<학생생활관 제공>

마 할 시간이에요. 로비에 있는 TV로 여자들이 물려와요. 2, 3층에 TV가 있는데 층마다 다른 드라마를 봐요. 취향에 따라 어디서 TV를 볼지 선택해요. TV를 다 보고 밀려있던 과제를 해요. 책상에 좀 앉아 있었더니 배가 출출한 것 같아요.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여자의 배는 밤 배와 간식 배가 따로 있어요. 여자는 룸메이트와 후문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튀김순(튀김, 떡볶이, 순대)을 먹기로 해요. 순식간에 분식을 해치우고 나니 졸어드는 웅돈과 늘어나는 뱃살이 걱정돼요.

여자는 룸메이트와 체력단련실에 가기로 해요. 생활관 관리동에 있는 체력단련실에는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들이 잘 마련돼 있어요. 운동을 마치고 여자는 체력단련실 안에 있는 체중계에서 몸무게를 재요. 하루 운동했지만 왠지 몸무게가 속 빠졌을 것만 같아요. 몸무게가 그대로예요. 여자는 내일 아침부터 매일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해요.

법범벽이 된 몸을 이끌고 여자는 목욕을 하러 가요. 4인실이 있는 A동에는 공용 샤워실이 지하에 있어요. A동 3층에

사는 여자들은 씻으러 지하에 갔다가 계단을 올라오는 사이에 다시 땀이 나서 물상을 지어요. 2인실이 있는 B동에는 층마다 샤워실이 있어요.

샤워를 마친 여자는 잠자리에 들어요. 눈을 감는데 룸메이트가 말을 걸어요. 남자친구 자랑부터 친구 뒷담화까지 수다를 떠다보니 시간가는 줄 몰라요. 벌써 새벽이네요. 여자는 얼른 눈을 감아요. 지금까지 여자에 대한 남녀탐구생활이었어요.

2. 남자편

다음은 남자의 생활이에요. 남자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들려요. 룸메이트의 알람이네요. 룸메이트는 알람을 바둑고 씻으러 나갔어요. 남자는 마음속으로 욕을 삼키며 어쩔 수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속옷차림으로 복도를 돌아다녀요. 하품을 하며 배를 북북 긁는 모습은 영락없는 아저씨예요. 적당히 씻고 남자는 수업에 가기 위해 옷을 입어요. 굳이 옷장을 열 필요는 없어요. 어제 입었던 바지가 의자에 걸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바지에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보고 페

브○○를 뿌려요. 남자는 바지가 깨끗해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요. 옷만 다 입으면 외출 준비 끝이에요.

남자는 수업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와요.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갔는데 룸메이트가 빨래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해요. 수북이 쌓여있던 빨래를 들고 세탁기로 가요. 집에서 지낼 땐 얼마가 빨래를 해주셨는데 직접 하려니 여간 귀찮은 게 아니네요.

남자는 세탁기를 작동시켜 놓고 룸메이트에게 당구 내기를 제안해요. 생활관 1호관 내에 있는 체육실에서 당구와 배드민턴, 탁구를 할 수 있어요. 남자는 경비 아저씨에게 당구 장비를 받고 체육실로 갔어요. 당구에서 진 사람은 치킨을 쓰기로 해요. 마음은 이미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가는 당구선수예요. 그러나 룸메이트는 후투꾸(정식 기술로 친 것이 아니라 어찌다가 맞은 요행수)가 장난이 아니네요. 결국 남자는 게임에서 졌어요. 눈물을 삼키며 치킨을 시켜요. 치킨이 오자 룸메이트는 신들린 듯 뼈를 뜯어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치킨을 보자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남자에게 쿠폰이 있어요. 쿠폰은 방문에 붙여둬요. 쿠폰 수를 세어보니 다음번에 치킨을 시키면 쿠폰닭을 먹을 수 있겠어요.

남자는 빨래를 널고 샤워를 하러 가요. 남학생 생활관에는 층마다 샤워실이 있어요. 샤워를 하고 밀려 있던 과제를 해요. 과제를 거의 다 마쳤을 쯤 선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술 마시게 시정으로 나와."

남자는 '조금만 마시자'하고 생각하며 당장 책을 덮어요. 술은 술을 잘 들어가서 술이라고 부르니까요. 조금만 마시려고 했는데 소맥(소주+맥주)에 용주(소주+맥주+콜라)까지 달렸어요. 노래주점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룸메이트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점검인데 왜 안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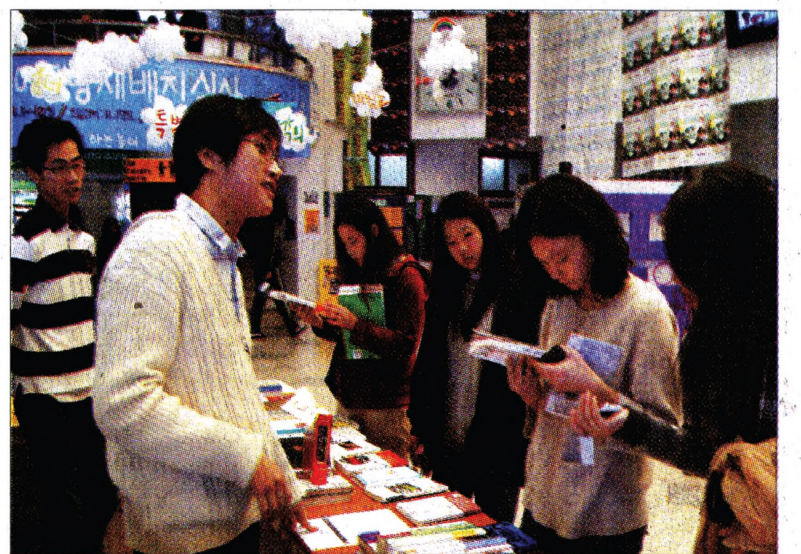
오 마이 갓. 목요일마다 11시에 점검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점검을 받으러 전력으로 달려왔어요. 술기운에 달리기까지 했더니 너무 피곤해요. 남자는 점검을 받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요. 지금까지 남자에 대한 남녀탐구생활이었어요.

고용희 기자

헌책, 학생회관에서 '날개' 달다

“헌책 보며 자신을 돌아봤으면”

출판문화론 수강생들, 헌책방 살리기 앞장



지난 11일 학생회관에서 열린 헌책방 살리기 행사에서 학생들이 책을 보고 있다.

지난 11일 학생회관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했다. 1층에 마련된 책상 위에는 전시용으로 내놓은 고서적과 손때 묻은 책, 색이 바래 누르스름한 책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주의 출판문화를 살리는 방법과 주제를 찾은 끝에 '헌책방 살리기'를 생각해 봤어요."

최낙진(언론홍보) 교수의 출판문화론 수업을 듣고 있는 '책갈피' 조의 말이다. 이들은 제주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헌책방인 책발서점에서 책을 가져와 판매하고 있었다. 책발서점 김창삼(54) 사장은 책만을 팔아서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 농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했다.

'책갈피' 조는 조미현(일어일본 3), 김신철(언론홍보 4), 박경식(언론홍보 4), 김나나(언론홍보 4), 부수홍(언론홍보 4), 전은진(전산통계 4) 씨로 구성되어 있다. 팀원들은 "요즘은 일반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경우가 적은 것 같다"며 "헌책을 파는 것의 의미가 예전에 비해 많이 퇴색된 것 같다"고 말했다.

책상에는 50% 할인, 1000원, 2000원이라고 적힌 팻말이 꽂혀 있었다. 1차로 300여 권을 가져왔는데 이미 상당량이 팔려나가 김신철 팀원은 서점에 다시 책을 가져다 갔다고 한다.

임윤규(수의학과) 교수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샀다"며 "책 뿐만 아니라 헌옷 팔기 같은 것을 주제로 한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반 학생들의 관심도 상당했다. 오현민(언론홍보 1)씨는 "평상시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여유가 없었다"며 "요즘 책값이 비싼 면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할인된 가격에 책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갈피 조에서는 은행잎을 책 사이에 끼워 주고 있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학생회관 2층, 일부 단과대학에 붙여진 홍보 포스터에서 그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조미현 팀장은 "전국 헌책방 블로그가 있는데 앞으로도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많이 알리고 싶다"며 "제주도에도 헌책방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책갈피 팀원들은 "요즘같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헌책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며 "누군가가 읽었던 책을 내가 읽고, 또 다른 사람이 읽으면서 추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치 있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해외견학 및 연수, 기업방문

세계자연유산유적지, 세계문화유산유적지, 세계유명명산, 해외감귤산업체방문, 해외물산업체방문
농업, 축산업기관방문 및 연수, 산업별 박람회 - 반도체, 기계, 건축, 제약, 바이오, 식품 등..

중국	대만	홍콩	호주
상해/황산 5일	4일	4일	6일
북경/만리장성 4일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5일		시드니
상해/항주/소주 4일	필리핀 5일	지중해 8일	미주
상해/장가계 5일	마닐라 8일	터키/그리스 5일	미동부 8일
	인도 5일	캄보디아 5일	미서부 8일
	인도/젠지스 5일	앙코르왓 5일	캐나다
	베트남 5일	태국 5일	
	베트남북부/하롱베이 5일	방콕/파타야 5일	
일본			유럽
동경/후지산 4일			서유럽 8일
후쿠오카 4일			동유럽 8일
오사카/나라/코토 4일			북유럽 8일

한투어 전문 판매대리점

JR투어

정답: 문인관 [일어일문학과졸업] TEL. 748-2002 H.P: 010-4693-2394

제이알투어(주) 제주시 연동 2312-1, 국외여행업등록 94호, 제주도의 토종기업, 34년 전통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해외여행, 국내여행, 렌트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업